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19호

Jeff Pippenger

2025-12-25

숫자 열아홉

유다 지파의 사자는 예수를 가리키는 이름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시고 그 후에 그 봉인을 푸시는 사역을 강조한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다윗의 뿌리이기도 하신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 책을 열도록 이기셨다. 다윗의 "뿌리"는 제시였고, 제시의 뿌리는 파레스였고, 그의 뿌리는 유다였고, 그의 뿌리는 야곱이었고, 그의 뿌리는 이삭이었고, 그의 뿌리는 아브라함이었다. 유다 지파의 사자와 관련하여 다윗 또는 제시의 뿌리가 언급될 때 그것은 시작과 끝의 원리, 곧 알파와 오메가를 강조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봉인이 풀릴 때 그의 성품의 주요 속성은 그가 알파와 오메가이시라는 점이다. 그가 누구이신가 하는 사실 자체가, 때가 되었다고 그가 정하실 때 유다 지파의 사자가 봉인해 두었던 예언들을 풀어내는 데 사용되는 원리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봉인이 풀리는 것은, 그분이 자신의 뜻대로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 그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한 요소이다. 화이트 자매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더 잘 이해될 때 우리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분의 뜻대로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빛이다.

화이트 자매는 마지막 날들을 바라보며,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는 큰 개혁을 언급한다. 거룩한 역사 속의 부흥과 개혁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각 거룩한 시기는 일요일 법령이 내려지기 직전에 시작되는 마지막 큰 부흥과 개혁을 가리켰다. 그러한 부흥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에서 풀릴 때 일어난다. 일곱 우리는 다니엘서가 12장에서 봉함되었던 것처럼 봉함되었다.

1260이라는 상징과 연관된 흠어짐의 기간이라는 예언적 특성을 적용해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사흘 반 동안 거리에서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18절에 이르면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이른다. 모세와 엘리야는 인류의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 그들은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인 소돔과 애굽의 거리에서 상징적인 1260일 동안 흠어져 있다.

모세와 엘리야는 3절부터 그들이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7절까지 그들의 증언을 하도록 권능을 받았다. 요한은 2절에서 성전을 측량하는 일을 마쳤고, 이어 모세와 엘리야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의 증언을 하도록 권능을 받았다. 엘리야와 모세의 메시지는 1844년에 빌라델비아 시대의 밀러주의 재림운동에 주어졌고, 1863년이 되자 그들의 목소리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풍습과 전통 아래에 묻혀 버렸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반 동안 그들의 증언을 하도록 권능을 받았는데, 이는 1863년 이후로 점점 짙어지는 어둠을 상징한다.

화이트 자매가 일곱 우레를 첫째와 둘째 천사의 사건들을 대표한다고 정의한 것을 적용하면, 우리는 '줄 위에 줄' 방식으로 한 천사가 메시지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하는 역사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줄 위에 줄로 보면, 그 천사는 첫째 천사이면서 동시에 둘째 천사이다. 하나는 1840년 8월 11일에 한 발을 땅에, 한 발을 바다에 두었고, 다른 하나는 1844년 4월 19일의 실망 때 도착했다.

각 병행 역사에서 다음 이정표는 하박국의 판들과 연관된 하나님의 손이다. 첫째 천사 때 1843년 도표가 제작되었으나, 일부 수치에 오류가 있었다. 둘째 천사 때에는, 하나님의 손이 하박국의 판들의 이정표이며, 그분이 그 오류에서 손을 거두심으로써 드러났다. 그분이 손을 거두셨을 때, 그 기별은 점진적으로 전개되어 1844년 10월 22일의 실망 직전, 엑서터 야영 집회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두 개의 선은 전 세계적인 메시지를 가리키는데, 오는 천사가 한 발은 땅에, 다른 한 발은 바다에 디디며, 영감은 이것이 전 세계적인 메시지를 의미한다고 우리에게 알려 준다. 그 천사는 또한 열 처녀의 비유에서 지체하는 때의 시작을 가리킨다. 이 첫 번째 이정표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손이 거짓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본다. 1844년 4월 19일, 예언적으로는 그 이상이 거짓말한 것처럼 보였지만, 인내한 자들은 기다렸고, 비록 그 이상이 지체하는 듯했으나 거짓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세워 가는 그 선이 시작될 때, 첫 실망의 거짓이 첫 번째 이정표의 특성으로 표시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과 하박국의 판이라는 이정표는 하나님께서 한 오류를 덮으셨다가 그 오류에서 자신의 손을 거두시는 것을 보여준다. 밀러주의 역사에서 그 오류는 1842년 5월, 그 도표가 인쇄되었을 때 하나님에 의해 허용되었고, 이후 1843년이 끝날 때 그 오류가 드러났으며, 그 후 얼마가 지나서야 주께서 숫자상의 그 오류에서 자신의 손을 거두셨다. 그 오류의 기간은 1842년 5월부터 첫 번째 실망 이후 어느 시점까지였다. 첫째 천사의 경우, 하나님의 손과 하박국의 판은 1842년 5월에 표시되었지만, 둘째 천사의 역사에서 그의 손을 거두신 것은 첫 번째 실망 직후였다.

이는 '손'이라는 이정표가 예언적 기간임을 보여준다. 그 기간은 그분의 손이 한 오류를 덮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 오류 위에서 그분의 손이 거두어지는 것으로 끝난다. 그분의 손이 덮고 또 거두는 이 기간은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예언의 빛을 인봉하시고 다시 인봉을 푸시는 사역을 보여주는 예표이다. 그분은 진리를 덮으셨고, 이어서 본래의 빛과 모순되지 않는 다른 빛 가운데서 바로 그 동일한 진리를 드러내셨다. 그분은 밀러주의자들의 한밤중 외침의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천사의 도래로 시작된 지체의 때는 그분의 손이 거두어지면서 끝났고, 이로써 봉인된 예언의 빛이 풀려 '칠월운동'이 시작되어 엑서터 야영회에서의 '밤중소리' 기별로 이어졌으며, 그 기별은 그곳에서 해일처럼 번져 대실망의 '닫힌 문'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분의 말씀이 봉인이 풀리면서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은 점점 고조되는 부흥과 개혁을 일으켰다.

1863년에 라오디게아의 밀러주의 운동은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되었고, 엘리야와 모세를 둘로 친 죄로 광야로 보내졌다. 윌리엄 밀러의 메시지는 엘리야의 메시지였고, 밀러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모세의 "일곱 때"였다. "일곱 때"를 거절하는 것은 모세를 죽이는 것이었고, 밀러가 제시한 근본 진리를 거절하는 것은 엘리야를 죽이는 것이었다.

1863년에 그 사자와 그 메시지는 거리에서 살해되었고, 그때부터 그들을 찾는 유일한 길은 예레미야의 옛 길에서 그들의 무덤을 찾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거리에서 죽어 있었다. 즉, 그들이 부활할 때까지. 그들이 부활하는 때는 "그 순서대로 드러날" "일곱 우레"의 장래 사건들이 14만 4천의 역사 속에서 반복될 때이다.

첫째 천사의 역사를 둘째 천사의 역사 위에 포개어 놓을 때, 그 예언적 구조는 그리스도의 손을 따라갈 수 있는 참조점을 만들어 주는데, 그 손은 한밤중 외침의 길 위에 비치는 빛이다. 한밤중 외침의 원래의 빛이 그 길을 밝히며, 그 길을 위로 이끄는 것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오른팔"의 빛이다.

"나는 빛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고, 땅에서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았다. 나는 세상에서 재림 신자들을 찾으려고 돌아보았지만 그들을 찾을 수 없었는데, 그때 한 음성이 내게 말했다. '다시 보아라, 그리고 조금 더 위를 보아라.' 이에 나는 눈을 들어 보았고, 세상 위 높이 들어 올려진 곧고 좁은 길을 보았다. 이 길 위에서 재림 신자들은 길의 저 끝에 있는 도성으로 가고 있었다. 그들 뒤, 길의 시작에는 밝은 빛이 세워져 있었는데, 한 천사는 내게 그것이 '한밤중의 외침'이라고 알려주었다. 이 빛은 길 전체를 따라 비추어 그들의 발에 빛을 주어,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했다."

"그들 바로 앞에서 그들을 성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만 있으면, 그들은 안전했다. 그러나 곧 몇몇은 지쳐서, 성까지는 너무 멀다고 말하며, 이미 전에 그곳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영화로운 오른팔을 들어 그들을 격려하셨고, 그 팔에서 나온 빛이 재림의 무리 위로 물결치듯 비치자, 그들은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 또 어떤 이들은 경솔하게도 자신들 뒤의 빛을 부인하며,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 뒤의 빛이 꺼져 발아래가 완전한 어둠에 잠겼고, 그들은 비틀거리며 목표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길에서 벗어나 아래의 어둡고 악한 세상으로 떨어졌다." 엘렌 G. 화잇의 그리스도인의 경험과 교훈, 57.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팔을 드실 때, 그분은 자신의 "손"을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사역의 상징으로 사용하신다. 1840년 8월 11일에 내려온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도착을 함께 살펴보면, 두 천사 모두 손에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나는 온 하늘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에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여 왔는지를 보았다. 예수께서는 능력 있는 한 천사에게 내려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경고하라는 사명을 맡기셨다. 그 천사가 하늘에서 예수의 임재를 떠날 때, 지극히 밝고 영화로운 빛이 그보다 앞서 나아갔다. 나는 그의 임무가 자기의 영광으로 온 땅을 비추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들었다. ...

또 다른 강한 천사가 지상으로 내려오라는 사명을 받았다. 예수께서 그의 손에 한 문서를 쥐어 주셨고, 그가 땅으로 내려오면서 외쳤다. "바벨론은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때 나는 실망한 이들이 다시 하늘로 눈을 들어, 주님의 나타나심을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마치 잠든 듯 멍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깊은 슬픔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실망한 이들은 성경을 통해 자신들이 지체의 때에 있으며, 그 환상의 성취를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을 1843년에 그들의 주님을 바라보게 했던

동일한 증거가, 1844년에는 그분을 기대하게 했다. 그러나 나는 다수가 1843년에 그들의 믿음을 특징지었던 그 열의를 지니고 있지 않음을 보았다. 그들의 실망이 그들의 믿음을 약화시켰다. 초기 저술, 246, 247.

두 천사는 각각 함께 하나의 상징을 이루는 세 천사 중 한 천사로서, 그들이 대표하는 메시지의 측면에서는 서로 부합하지만, 각자 고유한 메시지를 나타낸다. 두 천사는 손에 "글"이 적힌 것을 들고 있는데, 이는 시험을 상징한다. "첫째와 둘째 천사는 셋째 천사와 나란히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들에게 예언의 계열 속에서 그 위치를 부여하셨으며, 그들의 사업은 이 땅의 역사가 마칠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여전히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이며, 뒤따르는 이 기별과 나란히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천사는 큰 음성으로 그의 경고를 선포한다. 요한은 말하였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이 비춤 가운데서 세 기별 모두의 빛이 하나로 결합된다." The 1888 Materials, 803, 804.

화이트 자매는 셋째 천사를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로 지목하고, 첫째와 둘째 천사가 요한계시록 18장의 셋째 천사가 나타내는 예언적 역사와 병행한다고 밝힌다. 따라서 그녀는 1840년 8월 11일 첫째 천사의 강림을 9/11과 연결시키며,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셋째 천사'임을 지적한다. 셋째 천사는 세 천사 중 마지막이며 첫째 천사로 표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화이트 자매는 첫째 천사의 사명이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의 사명과 동일하다고 알려주는데, 두 천사의 사명이 모두 '그 영광으로 땅을 밝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곱 우레"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역사 안에 있는 사건들의 구분을 나타내며, 그것들이 셋째 천사의 역사에서 반복될 것임을 의미한다. 영감은 우리가 이 역사들을 "줄 위에 줄"로 맞출 때, 1840년의 첫째 천사의 강림이 9/11 때 그분의 강림과 일치한다고 지시했다. 그것은 두 증인과 함께 먹어야 하는 시험의 기별을 식별하고, 실망을 첫 번째 이정표와 일치시킨다.

"일곱 우레"는 실망으로 시작하여 더 큰 실망으로 끝나는 예언적 시기를 상징한다.

첫째 천사의 강림에 관한 예언의 선을 둘째 천사의 도래와 일치시키면, "진리의 구조"가 형성된다. 진리는 세 단계로 정의되며, 처음과 마지막은 동일하고 가운데 단계는 반역을 나타낸다. 이 설계에 첫째와 둘째 천사를 맞추면, 첫째와 둘째 천사로 이루어진 구조가 형성되어 요한계시록 18장의 셋째 천사를 나타내며, 요한계시록 18장의 셋째 천사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결합이다.

요한계시록 18장의 셋째 천사는 두 가지 음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음성은 9/11에 뉴욕의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성취되었고, 4절의 둘째 음성은 일요일 법이다. 9/11부터 일요일 법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 18장의 셋째 천사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결합을 나타낸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두 천사의 역사를 "line upon line"으로 사용하여 요한계시록 18장의 셋째 천사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를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에 맞추는 것이다.

두 천사는 첫 번째 실망에 도달하며, 두 천사는 예언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둘 다 천사의 손에 있는 시험의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 그 선상에서 다음으로 제시되는 이정표는 하박국의 표로, 그것은 하나님의 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첫째 천사의 선에서는 1843년 도표가 1842년 5월에 제작되었고, 둘째 천사의 선에서는 도표가 없었다. 그 도표는 둘째 천사의 도착과 함께 끝났다. 둘째 천사의 선에서 하박국의 표라는 이정표는 1843년 도표의 숫자상의 오류에서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는 것이다.

그분의 손이 첫째 천사의 이정표에 있는 실수를 덮었고, 둘째 천사의 선에서 바로 그 동일한 이정표에서 그분의 손이 거두어졌다. 그러므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평행한 선들에서 하박국의 판들의 이정표는 두 단계를 나타낸다. 첫 단계에서는 그분의 손이 실수를 덮고, 하박국의 판들의 이정표가 표시하는 기간의 끝에 그분은 손을 거두신다. 지체의 때는 둘째 천사의 도래와 함께 시작되었고, 그분의 손이 거두어지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끝난다. 하박국의 판들의 이정표는 시작은 그리스도의 손으로, 끝은 그분의 손으로 표시되는 한 기간을 나타낸다.

첫 번째 실망 때 두 손이 표시되며, 두 손 모두 취하여 먹어야 하는 시험의 기별을 지니고 있다. 그다음 기초적 진리를 나타내는 예언적 기간이 하나님의 손이 덮으심으로 시작되어 그분의 손이 드러내심으로 끝난다. 다음 이정표는 엑서터 캠프 집회로, 자정의 외침이 그리스도의 손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려는 자들을 분리하고 정결하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을 때, 그분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더 이상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하셨다. 그분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역사를 나타내며 셋째 천사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일곱 우레"를 막 봉인하신 참이었다. 그분은 다니엘서 12장의 예언들을 봉하셨던 것처럼 "일곱 우레"를 봉인하셨다. 다니엘서 12장에서, 세 가지 상징적 기간 중 첫 번째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두 손을 하늘로 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지는 일이 끝나면 "사람들의 놀라움이 된 자들"이 정결하게 되어 제물로 들어 올려질 것이라고 선포하신다. 우리가 현재 살피고 있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구조는 매 단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분이 진리를 덮으실 때는 실망이 생기고, 그분이 손을 거두실 때는 빛이 생기며, 그 빛은 한밤중 외침의 기별의 빛이다. 첫 실망에서 대실망에 이르기까지는 알파와 오메가의 서명을 지니고 있으며, 진리의 구조 안에 제시되어 있다. 시작은 끝을 대표하며, 두 실망 사이의 이정표는 하박국의 도표의 봉함과 개봉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예레미야의 옛 길의 개봉이며, 성전이 일요일 법령 이전에 세워지는 기초를 나타내는데, 그 성전은 완성되면 모든 산들 위로 높이 들려진다.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중간 이정표는 반역을 나타내며, 밀과 가라지의 최종적인 분리로 표상된 역사 속에서 미련한 처녀들의 반역이 드러난다.

하박국의 판이라는 이정표로 표상된 반역은 점진적인 것으로 제시된다. 이는 그것이 단일한 이정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시작과 끝이 정해진 한 기간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실망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두 번 등장하는데, 손에 각각 메시지를 들고 있는 두 천사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 반역의 이정표에는 시작을 나타내는 손과 끝을 나타내는 손이 있어서, 그 예언적 특성 안에 역시 두 개의 손을 포함한다. 더 큰 실망의 세 번째 이정표는, 일곱 우레가 봉합되고 다니엘서 12장도 그러했던 바로 그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맹세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첫 두 천사의 예언적 구조의 끝을 그 천사가 표시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그는 예언적 시간의 적용을 끝내고, 다니엘서의 병행 본문에 자신을 두는데, 거기서는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을 들고 있다.

다니엘서 12장에는 말세에 봉인이 풀릴 세 가지 예언적 기간이 있으며, 이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이다. 다니엘의 마지막 절정의 환상에서 처음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대표하는 다니엘이 그 일과 그 환상 모두를 깨달았다는 사실이었다. 다니엘이 기록한 마지막 내용은, 지식의 증가가 유다 지파의 사자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어 '깨닫는 자들'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최후의 부흥과 개혁을 일으켰는가 하는 것이다. 그는 다니엘서 12장의 '세 기간'의 봉인을 푸는 것과 관련하여, 요한계시록의 '일곱 우레'의 봉인을 풀어 자신의 백성을 인치시는 일을 이루신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가 흠어지는 예언적 삼일반의 끝에서 모든 '이적들'이 끝날 것이라고 지적하실 때, 그분은 요한계시록 11장의 거리에서의 죽음의 삼일반이 끝났던 2023년 7월을 지목하고 계신 것이다. 이제 그 '이적들'은 일요일 법령에 앞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분은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을 드심으로써 2023년 7월을 표시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밀러주의 역사에서 그분이 그 실수에서 손을 거두셨을 때처럼 지체기의 끝을 표시하셨다. 첫 번째 실망은 밀러주의자들의 첫 실망으로 예표된 바와 같이 2020년 7월 18일에 일어났고, 지체기는 시작되어 그분이 남은 백성을 모으시려고 2023년 7월에 두 번째로 손을 뻗치실 때까지 계속되었다.

첫 번째 실망은 하나님의 손이 실수를 덮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밀러주의자들에게 그 실수는 1844년 10월 22일이 아니라 1843년을 지목한 것이었다. 그 실망은 12장 12절에 나타나 있다. 첫 번째 실망은 그분의 손이 그 실수를 덮는 것으로 표현되며, 첫 번째 실망에 이른 밀러주의자들로 표상되었다. 12절의 단어는 "cometh"이다. 기다리며 1335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으며, 1844년 4월 19일의 실망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cometh"로 번역된 단어는 "닿다"를 의미한다. 1843년이 1844년에 닿았을 때 밀러주의자들은 첫 번째 실망을 경험했다. 다니엘서 12장 12절은 1844년 4월 19일의 첫 번째 실망을 가리키며, 더 직접적으로는 2020년 7월 18일의 첫 번째 실망을 지목한다.

지식이 증가하고 밀과 가라지가 최종적으로 분리되며, 그로써 십사만 사천을 인치는 예언의 빛의 봉인 해제가 식별되는 끝의 때에 봉인이 풀리는 세 기간 가운데, 첫째 예언 기간과 마지막 예언 기간은 동일한 예언 기간이다.

7절의 첫 번째 마침표는 2023년 7월에 요한계시록 11장의 삼일 반의 흠어짐이 끝나는 것이고, 12절의 마침표는 그 동일한 흠어짐이 2020년 7월 18일에 시작되는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는 다니엘 12장의 일곱 우레의 역사를, 2020년 7월 18일의 실망에서 시작하여 상징적인 삼일 반이 지난 2023년 7월에 끝나는 역사로 표시하셨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알파와 오메가께서 마지막 지체의 때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실 때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을 하늘로 들어 영원무궁히 살아 계신 이를 두고 맹세하셨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아들, 곧 인자이신 분이 아버지와 함께 맹세를 하고 계신 곳은, 그리스도께서 처음 아브람을 약속으로 부르시고 이어 그 약속을 맹세로 확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야기의 절정이 시작된 바로 그 자리다.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세 가지 예언적 기간의 가운데 글자는, 열한째 절의 1290년으로 표현된 바와 같이, 아브람과 바울의 430년 언약 시간 예언의 오메가 성취에 다름 아니다. 밀러주의적 이해로 그 절에 접근하면 교황권을 위한 30년의 준비 기간과 그 뒤를 잇는 1260년의 교황권 박해가 식별된다. 아브람의 430년은 특정한 나라에서의 속박과 해방을 나타내며, 처음 30년은 주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나타낸다. 제사장들을 위한 30년의 준비는 끝의 때인 1989년에 시작되었고, 그 30년은 일요일법에서 끝나는데, 그때 그 절은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이라고 밝히며,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 1260년 동안 박해할 것이라고 하니, 이는 계시록 13장에서 요한의 상징적 42개월과 일치한다.

주께서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되는 자정의 위기 동안 섬길 제사장직을 준비하는 일을 시작하심과 함께, 1989년에 14만 4천의 개혁운동이 시작되었다. 알파와 오메가께서 히데겔의 물 위에 서시어 두 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고, 2020년 7월 18일부터 2023년 7월까지의 흠어짐이 성취되면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결합하시는 사역과 관련된 이적들이 마쳐질 것이라고 맹세하셨다.

이는 일곱 우레의 맥락에서 제10장의 동일한 선언인데, 그분은 거기에서 예언적 시간의 적용을 끝내셨을 뿐만 아니라,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날들에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될 것임도 밝히셨다. 다니엘서 12장의 병행 구절은 2023년 7월에 그 흠어짐이 끝났을 때, 두 병행 구절 모두에서 그리스도께서 손을 들고 맹세하신 것과 동시에 울려 퍼진 일곱째 나팔로 표상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인침의 마무리가 완료될 것임을 밝힌다.

다니엘 12장의 삼중 기별의 첫 번째 예언적 기간과 마지막 예언적 기간은 알파와 오메가의 표징을 지닌다. 7절의 첫 기간은, 12절이 그 시작을 표시하는 바로 그 동일한 기간의 끝을 지목한다. 7절과 12절 사이에는 1989년의 끝의 때에서 은혜의 시한이 닫힐 때까지의 역사가 나타나 있다. 7절의 알파 기간과 12절의 오메가 역사 사이에는 일요일 법령으로부터 미가엘이 일어나실 때까지의 인류의 마지막 반역이 제시되며, 그것은 바로 미가엘이 일어나시는 그 장에서 제시된다.

중기의 반란은 주로 반란의 외적 역사이지만, 처음 30년은 이후의 1260 기간으로 대표되는 외적 세력과 직접 대면하는 사제들의 준비에 관한 내적 역사이다.

중간 기간은 히브리 알파벳 열세 번째 글자의 반역을 나타내며, 유예 기간이 이어지는 동안 지구상에서 벌어질 대쟁투의 최후 전투를 묘사하는 가운데 내적 요소와 결합한다. 그 외적과 내적의 결합은 히데겔 강과, 알파와 오메가의 표식을 지닌 세 장으로 대표되는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의 메시지이기도 하며, 그 세 장은 진리의 구조 위에 세워져 있다. 첫째 장과 마지막 장은 영원히 빛나는 별들로 묘사된 하나님의 백성의 인침을 다룬다. 반역의 중간 장은 같은 구조의 중앙 절인 11절에서 1290년으로 표현된 같은 역사를 식별한다.

그리스도께서 예언적 구조 안에서 자신의 손을 사용하실 때 그것은 많은 진리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길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2023년 7월에 봉인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 봉인 해제에는 일곱 우레의 봉인 해제와 다니엘서 12장에 나타난 기별의 봉인 해제가 포함된다. 그 봉인 해제는 40절의 감추어진 역사 속에서 일어나며, 그 역사는 1989년에 시작되어 일요일법에서 마무리된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인침을 받게 되며, 그들은 성령의 부어지심으로 인침을 받는다. 성령의 마지막 부어지심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 확인되며, 거기서는 그것이 일곱째, 곧 최종 봉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5장에서 이기셔서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을 여셨다.

여섯째 인은 제6장 끝에서, 죄를 위한 중보가 더 이상 없는 기간 동안 누가 능히 서겠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했다.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요한계시록 6:17.

다음 장, 또는 다음 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요일 법령 위기 동안 하나님의 나라로 모여드는 큰 무리와 십사만 사천의 인침을 소개한다. 십사만 사천은 여섯째 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들이 7장에서 묘사된 후, 이어서 8장은 일곱째이자 마지막 인이 떼어지는 것을 밝힌다.

그가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 하늘에는 반 시간쯤 침묵이 있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고, 그들에게는 일곱 나팔이 주어졌다.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서서,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 위에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을 드리도록 많은 향이 그에게 주어졌다.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한 그 향의 연기가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그리고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로 그것을 가득 채워 땅에 던지니, 음성들과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있었다. 요한계시록 8:1-5.

이사야 6장에서 "숯"으로 표현되며 화이트 자매가 정화의 상징으로 지목한 "불"은 제단에서 취하여 땅에 던져진다. 오순절에 하늘에서 온 "불"은 "불"의 혀들로 표현되었다. "불"은 언약의 사자가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마태복음 3:12. 이것은 정결하게 하시는 때들 가운데 하나였다.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쭉정이는 알곡에게서 분리되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책망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허영에 차 있었고 스스로 의롭다 하였으며, 겸손의 생애를 받아들이기에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에게서 돌아섰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그 제자들이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영혼들은 시험을 받고 있다. 진리가 마음에 직접 적용될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음을 본다. 그들은 자기 자신 안에 전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들은 자아를 부인하는 그 일을 떠맡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가 드러날 때에 그들은 분노한다.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면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수군거린 것처럼, 실족하여 떠나간다.” 시대의 소망, 392.

불은 엘리야의 제물 위에 내려왔고, 천사에게 드린 기드온의 제물 위에도 그렇게 내려왔다. 정화의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땅에 던져지는 그 '불'은, 말세에 봉인이 풀리는 예언의 메시지가 권능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일곱우레가 상징하는 사건들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성취되며, 말세까지 봉함되어 있던 다니엘 12장의 세 예언적 기간으로 그것이 입증되는 때에 일어난다.

인류의 은혜의 시한이 끝나기 직전에 인봉이 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일곱우레의 인봉이 풀림, 일곱째 인을 떼는 일, 다니엘서 12장의 인봉이 풀림,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40절의 감추어진 역사—곧 천사가 베 옷 입은 이에게 이 놀라운 일들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물었던 바로 그 역사—의 인봉이 풀림을 포함한다.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2023년 7월의 기다림의 때의 끝에 이르게 될 때, 너희는 십사만 사천 명의 인침의 역사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는 또한 요한계시록 11장의 상징적인 삼일 반이 끝날 때, 1798년의 '끝의 때'로 예표된 바와 같이, 다니엘서의 예언적 메시지가 봉함이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상징적인 삼일 반의 끝에 봉함이 해제될 진리는, 다니엘서의 봉함과 봉함 해제를 식별하고 정의하는 바로 그 아홉 구절에 담겨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대대손손 전해 내려오던 전통들과 성경에 대한 인간적 해석이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사람들에게서 가려 버렸다. 진리는 전통의 더미 아래 묻혀 버렸다. 거룩한 문서들의 영적 의미가 사라졌으니, 이는 그들의 불신 가운데 사람들이 하늘의 보화에 이르는 문을 잠가 버렸기 때문이다. 어둠이 땅을 덮고, 짙은 흑암이 백성을 덮었다. 진리가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았으나, 어디에서도 신적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다. 죽음의 장막과 같은 침울함이 온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사자는 승리하셨다. 그분은 신성한 가르침의 책을 봉하고 있던 인을 여셨다. 세상은 순전하고 섞임 없는 진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진리 자체가 내려와 어둠을 몰아내고 오류를 바로잡았다. 하늘로부터 세상에 오는 각 사람을 비추는 그 빛과 함께 한 스승이 보내졌다. 지식, 곧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던 남녀들이 있었고, 그것이 왔을 때 어두운 곳에 비치는 빛과 같았다. 스팔딩 매간, 58.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해석한다고 자처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전통에 따라 그것을 해석했다. 그들의 관습과 규칙은 점점 더 엄격해졌다. 영적인 의미에서, 거룩한 말씀은 사람들에게 봉인된 책과 같이 되어, 그들의 이해에 닫혀 있었다. 시대의 징조, 1905년 5월 17일.